

“상상도 못했던 일상 회복에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 같다”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에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8명 사적 모임 허용 첫 주말, 지역 상가들 돌아보니

가림막 사라진 식당·유흥가,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 예약 20% 늘고 입구엔 대기줄...밤새도록 회포 풀어

“여덟명까지 모임 수 있게 되니, 확실히 인원수가 많은 예약 손님이 늘어 모처럼 장사할 맛이 나네요.”

사적 모임 기준이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행되고 맞은 첫 주말, 광주도심 식당가와 유흥가는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모양새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날로 증가하고, 방역수칙 또한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휴일인 20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오리구이 전문점.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지만, 가게 입구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손님들로 가득찬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을 붙여 대어섯명에서부터 많게는 여덟명까지 앉아 식사하는 손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4인용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마다 놓여져 있던 아크릴 가림막이 아예 벗겨져 있는 테이블이 등성등성 있는데다, 5인 이상의 단체 손님이 오면 그때마다

종업원들이 테이블 중앙의 가림막을 빼고 있었다. 며칠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터라 아크릴 가림막 없이 붙여진 두개의 테이블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직계가쪽뿐만 아니라 이날 이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친구나 모임 등의 손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식당에서 만난 A(여·70)씨는 “모임하는 친구들이 여섯명인데, 다같이 만날 수 없으니 만남을 미뤄왔다가 오늘에야 여섯명이 함께 만났다”며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마쳐 부담 없이 모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돼지갈비 전문점도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식당 관계자는 “금요일 밤부터 5인 이상의 예약문의가 많았다. 가족들(5인 이상)과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직제가족이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며 “예약 손님만 보더라도 지난 주에 비해 20%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이 많이 찾는 동구 구시청 일대와 상무지구 주점가도 다시 들쭉였다.

19일 밤 찾은 상무지구 주점가는 고막이 터질 듯한 음악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화려한 간판·내문사인도 손님들은 불러들였다.

멈춰있던 버스킹 공연도 재개됐고, 여러 명이 둘러앉은 술자리도 밤새 이어졌다.

직장인 B씨는 “오늘 친구 여섯 명과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중간에 친구 두 명이 합석해 여덟명이 됐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다수가 만나니 술자리가 더 즐겁다”고 말했다.

동구 구시청 일대는 오후 8시께가 지나자 주점 앞에 줄이서기 시작했고 헌팅포차·감성포차 안은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특히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데다 인원 수 제한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룸 소주방’ 업계도 모처럼 웃음 지었다.

상무지구에서 룸 소주방을 운영 중인 C씨는 “룸 소주방에 4명에서 오는 손님들은 거의 없다. 사적 모임 기준이 늘어나니 룸 소주방 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백신 접종자는 늘고 확진자는 줄고 있으니, 조만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 3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2차 설명회 광주교육청 25일

광주시교육청이 일간고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에 대비, 지난 18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

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설명회는 ‘고교학점제가 묻고,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이 답하다’를 주제로 1부 강의, 2부 토론프서

트로 채워졌다.

시 교육청은 오는 2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설명회는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한다. 해당 영상도 게시, 직장생활로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동 붕괴 참사’ 다시는 없어야

고교생들의 분노

분향소 찾은 광주고교학생의회 “진상 규명·법 개정하라”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가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람 중심 개발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는 20일 동구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현화·분향한 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희생된 시민·학생과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했다.

광주고교학생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학생 대표 연합체로 고교 학생회장, 일반 학생 등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에 둔 개발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규정 개정·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도 함께 감사하고 싶

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 모든 의혹과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과 주위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 할 것,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불법 재하도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강화할 것, 관련 업체에 안전한 계획 수립, 안전 통로 확보, 낙하 방지, 교통 통제 등 안전 관리 대책 이행 등 6개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남진희(광주여고 3학년)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서에는 광주 모든 고등학생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았다”며 “광주의 학생과 시민 안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민노총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민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9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학동 재개발지구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추모와 중대 재해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섀미’와 ‘빨리’가 만들어진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였다”며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고 경찰 조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관행과 부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전에는 부산 건설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깔려 숨졌고, 이천에선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건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재벌 눈치 보기와 이윤 쟁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 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50여 곳에 이른다”며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 안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표류하던 어민들 구한 전남대 무인도서연구팀

조업에 나섰다가 너울성 파도에 전복된 어민들이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23분께 고흥군 도화면 단장마을 앞 해상에서 2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어선은 이날 통발 작업을 하던 중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김발이 스크루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인근 해역을 지나던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전복된 어선으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표류하던 어민 3명을 구조했다. 어민들은 뒤집힌 배 위에서 세 시간가량 애타게 구조만 기다린 것으로 알

려졌다. 어민들을 구조한 연구원들은 곧바로 조난 사고 위치를 신속히 해경에 신고했고, 여수해경은 인근에 있던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전복된 어선을 구조한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팀은 지난 2012년에도 포항 흥해를 앞바다 무인도에서 조난된 가족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수행하던 중 구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조치로 어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무인도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주 1회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협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협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지보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83)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9-2)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